

18% 인상 등록금 일방고지

내일부터 4일간 등록, 6차협상도 의견차 커 결렬

지난 26일 열렸던 총장과 총학생회 간부들의 6차 등록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학교측이 28일 전년대비 18% 인상을 일방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캠퍼스 교무처는 92학년도 1학기 등록을 내일부터 4일간 서울신학은행 전국 본·지

점에서 받기로 하였다. 경영일(사법대·영교) 서울캠퍼스 부총장은 "다음달 10일로 다가온 재학생 현황보고와 각종 증명서의 미발급등 학사업무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다"며 일방고지의 촉박함에 대해 밝혔다.

수원, 자치회비 분배율 확정

5개 특별위원회에 23.3% 배분

수원캠퍼스 총대의원회는 92년도 1학기 학생 자치회비 예산분 배안을 발표하였다.

총학생회는 학생 1인당 학생자치회비 7천3백원 중 4천1백원에 대한 총학생회, 단대 학생회 배분율을 35:65(총학 배분액:1천4백35원, 단대 배분액:2천6백65원)로 단대학생회에 대한 배분율이 총학생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배분율은 지난 17일 각 단대 총무들도 구성원 총무단 연석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총학생회 산하 특별위원회중 총대의원회, 학원자주화추진 위

원회,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협의회, 의 예산은 학생자치회비중 23.3%인 1천7백원을 5개 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또한 총대의원과 총여학생회의 예산은 지난 2학기과 변동이 없으며 총여학생협의회, 50원,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100원 등 지난해 예산에 비해 삭감되었다. 동아리연합회는 30원의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확충되었다.

한편 본교 교지인 '교향' 편집위원회에 1천3백20원, 응원단에 1백80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사 고

제 41기 수습기자 모집

4월6일 오후6시 원서마감

대학의 민주화와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해 전진한 학풍과 대 학문화를 건설하고 있는 대학주보가 92학년도를 이끌어갈 수습 기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 양캠퍼스 신입생
▲모집부문 : 일반(취재, 학술, 특집, 문화) 기자, 컷(만화) 기자, 광고(기획, 카피, 도안) 기자, 사진기자
▲선발방법 및 일정
1) 시험전형 : 주제토론, 인성조사, 작문 및 면접
2) 시험일시
△서울캠퍼스 : 1992. 4. 6(화) 오후6시
△수원캠퍼스 : 1992. 4. 7(수) 오후6시
3) 시험장소 : 양캠퍼스 편집실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편집실 (구내전화 0095), 수원편집실 (구내전화 2056)
▲원서접수 마감 : 3월17일 오후6시까지

대학주보사

故 이수병동문 17주기 추모제

내달 8일, 경희 자금심 고취사업 일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이하 총학) '故이수병동문 17주기 추모제'를 4월8일 오후2시 노천극장에서 거행한다. 한겨레신문 광고계와 '말'지 4월호 기사 게재, you총보방송 등 대내외적인 홍보를 계획, 실행하고 있는 총학은 이번 추모제는 경희 자금심 고취하는 총학 사업의 일환도 있지만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에서 이수병 동문의 발자취를 고찰하는 의의가 있다고 한다. 총학은 이번 행사에 2-3백여명

의 학·내외 인사들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다면서 초청장 발송을 오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며 오는 4월 7일까지 행사장 완비, 포스터, 팸플릿등 홍보물 제작을 오는 5일까지 끝마치기로 했다. '故이수병 동문은 1936년 12월3일 경남 의령군 부림면에서 출생, 59년 본교 경제학과에 편입, 74년 4월25일 박정희 장군이 체제유지를 위해 조작한 제2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학원세력에 침투하여

학생시위를 배후 조정하였다는 이유로 다음해 75년 사형을 당하였다.

그는 70년대초 변혁운동의 질적 전환기에 큰 획을 그었다고 말할 수 있고 옥중에서도 뜻깊은 의지로 혹독한 고문을 견뎌 내었으며 "...사람은 어디서나 시간이 흐르면 진보하기 마련입니다..."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하였다.

스키부 7년만에 종합우승

핸드볼부도 일본팀초청 친선경기

수원캠퍼스 스키부는 지난1월 11일부터 3월13일까지 무주리조트에서 열렸던 제44회 전국대학스키대회에서 84년이후 7년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대학스키협회가 주최한 이 대회는 총8개 대학이 참가하여 경합을 벌여 15Km개인전에서 체육과학대 박수근(체육·4)군과 배찬영(체육·3)군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체육부는 자매대학인 일본 동해대 핸드볼팀을 초청하여

현재 경기를 계속하고 있다. 동해대 핸드볼팀은 지난27일부터 본교 핸드볼팀과 4차례에 걸쳐 시합을 가졌으며 그외에도 서울대 아마추어 핸드볼팀과 경기를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동해대 핸드볼팀은 오늘오전 체육과학대 다용도 체육관에서 본교 아마추어핸드볼팀과 친선경기를 갖은후 오후에는 명지대에서 명지대 아마추어 핸드볼팀과 시합을 벌일 예정이다.

중간고사관계로 2주간 휴간

교수협, 복지관련 공개질의서 전달

평의원회의서 수원 교수회관 건립등 논의

본교 교수협의회(회장 : 원응순 외대영문)는 교수복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지난27일 학교측에 전달했다.

지난 19일 신입교수 환영회 및 평의원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로 구성된 이번 질의서에는 학생등록금 인상율과 동일한 교수급여 인상, 부교수급 이상 정년보장, 신입교수 연구실 해결, 해외파견교수 성별 심사기준 공개, 수원캠퍼스 통근버스 확충, 수원캠퍼스 교수회관 건립, 신입교수 임용시 직

급조정 및 적용기준 공개, 연구활동 향을 위한 연구전담부서 확충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한편 교수협의회는 일부회칙 개정안을 평의회에 상정, 상정된 회칙 개정안을 보면 제1장 총칙의 제1조 학사운영, 총장임면,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들에대해 심의, 건의한다라는 것에대해 심의, 의결한다로 바뀌었으며, 제10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조항에서 총회는 재적의원5분의2 출석으로 성립한다로, 제13조 평의원의 자격과

선출조항에서 평의원은 교무위원이 아닌 교수중에서 선출한다로 바뀌었다. 이번 개정안의 골격은 평의원의 자격이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회칙개정의 절차를 따지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산대 단편소위 건설 난항

학교측 문제제기 협상원점

산대대학 학생회는 지난 25일 오후2시 단대편제개편소위원회(이하 단편소위) 건설인준여부와 산대내 학생자치활동공간배정을 논의하기 위해 학교측과 협상을 가졌다. 이날 협상에서 학교측은 단편소위건설인준 뿐만 아니라 이전의 합의사항까지 문제제기를 하여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또한 학교측은 공간조정에어부여되어서도 이전의 입장을 고수하여 앞으로의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원 총학 사수대 모집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내달 8일부터 3일간 인하대학교에서 치뤄지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 총회에 참석할 사수대를 모집한다.

이날 총회는 본행사에외 사수대행사가 따로 준비되며 전대협대표들의 강의실방문 인사도 있을 예정이다.

학내연구소 활성화방안 마련 시급

▼대학을 흔히 진리의 상아탑이라 부른다. 그것은 바로 학문탐구의 역할이 대학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학문적인 입장에서 대학의 기능을 진리탐구와 보급이라고 한다면 학교부설 연구소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밤새 깨달을 모르고 타오르는 연구소의 불빛을 보면 그 대학의 미래는 쉽게 짐작될 수 있지 않을까.

▼본교에는 총38개의 부설연구소가 있다. 대학내 부설연구소가 정책적 연구를 위주로 하는 일반 사회의 연구소와 다른 점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학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순수함이 강조되는 데 있다. 그러나 본교 대부분의 부설연구소들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체 연구보다는 대외 연구과제

를 용역받아 그 과제에만 몰두하는등 순수한 학문연구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학문적인 공간부족도 심각해 심지어 학교측으로부터 연구실을 제공받지 못한 연구소들도 다수 있어 소재과학자 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부설연구소가 정도를 벗어나게 된다는 우선 연구소에 아직 진지한 연구풍토가 뿌리내리지 못한 점과 학생들의 무관심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학교와 다른 점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학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순수함이 강조되는 데 있다. 그러나 본교 대부분의 부설연구소들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체 연구보다는 대외 연구과제

태대학의 경우, 연구처라는 연구소 관장부서가 연구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는 반면 본교에서는 전문 주무부서가 없이 교무업무만으로도 벅찬 교무처에서 관장하고 있는점 또한 연구소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이 되고있다.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부설연구소가 제일을 가기 위해서 학교내 연구단지 조성, 전임연구원 확충, 유명무실한 연구소들의 정리등 여러가지 대처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방안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학교당국이 학문연구라는 대학기능을 중시하고 연구활동에 촉매제가 될 부설 연구소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 부설연구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공 고

— 등록금 고지에 관한 안내문 —

신학기를 맞아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개학한지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본대학만이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하여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학생 여러분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등록금과 관련하여 지난 3년간 본교가 쌓아온 원만한 합의에 의한 결정의 전통이 이어지지 못하게 되어 애석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학교당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92학년도 등록금 결정을 위하여 학생대표들과 인내와 이해심을 갖고 대화를 계속하여 왔으나 학교당국과 학생대표들간의 의견차이가 커 오늘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잘 알고있는 바와 같이 교육부에 4월 10일까지 재학생 현황을 보고하지 않으면 학생 여러분은 재학생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재학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장학자격, 기타 학생으로서 가지게 되는 신분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학사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당국으로서서는 더이상 등록금 결정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학교당국으로서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받게될 여러가지 불이익을 해소하고 원만한 학사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기간을 결정하여 고지하니 학생 여러분은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갖고 등록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등록금 인상은 18%(등록금 책정기준인 인문·사회계열의 등록금액은 타대학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임)이며 재학생과 신입생의 인상률 1%의 차이는 2학기 등록금 고지시 조정토록 할 것입니다.

경희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번의 계기를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 보다 나은 경희 건설에 다함께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 등록기간 : 1992. 3. 31(화)~4. 3(금) (4일간)

1992. 3. 28

경희대학교 서울·수원 캠퍼스 교무처장

'92학년도 등록금(1학기 금액)

(단위 : 원)

구분	학년	수업료	기성회비	합계	비고
인문 사회	2	641,150	346,450	987,600	
	3	641,150	346,450	987,600	
	4	641,150	346,450	987,600	
이학 체육	2	769,500	415,650	1,185,150	
	3	744,050	401,600	1,145,650	
	4	724,750	391,250	1,116,000	
공학 예능	2	897,550	485,100	1,382,650	
	3	846,350	457,300	1,303,650	
	4	801,500	433,000	1,234,500	
약학	2	897,550	485,100	1,382,650	
	3	858,750	464,700	1,323,450	
	4	820,300	443,900	1,264,200	
의·치·한	예2	983,900	531,400	1,515,300	
	본1	927,700	501,100	1,428,800	
	본2	927,700	501,100	1,428,800	
	본3	962,050	519,750	1,481,800	
	본4	962,050	519,750	1,481,800	

경희대학교 교무처